

여말선초 청주한씨 제주입도조(濟州入島祖) 한천(韓蕝) 재조명*

홍 기 표**

- I. 머리말
- II. 한천의 생애
- III. 한천의 인맥과 사상
- IV. 최익현의 「서재한공유허비」
- V. 맺음말

국문요약

본고는 여말선초 고려유신(高麗遺臣)으로 청주한씨 제주 입도조로 알려진 한천(韓蕝)을 재조명하였다. 현재까지 그의 생애 전반을 조명한 논문은 한 편도 없다. 이에 본고는 한천과 교유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의 개인 문집들을 통하여 그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였다. 더 나아가 한천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몰년’, ‘제주 입도와 시기’, ‘후사(後嗣)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소한 문헌 및 금석학적 수준에서 한천을 조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합 분석하였다. 또 그 자료들 속에서 향후 규명해야 할 논점까지 제시하였다. 본고를 토대로 향후 한천 연구에 심층적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여말선초, 청주한씨, 한천, 제주입도조.

* 본고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제주의 시간 그리고 사람’ 학술대회(2016.10.21.)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하여 작성됨.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I. 머리말

여말선초 고려유신(高麗遺臣)으로 알려진 한천은 관련 자료가 너무나 빈약하다. 『고려사』 열전에 소개되어 있지도 않고, 전하는 개인문집도 없다. 오늘날 그의 생몰년도 미상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의 제주 입도와 그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육지의 청주한씨 종친회에서는 그의 후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주 청주한씨 종친회에서는 입도조로 한천을 적시하고 그의 후사 및 후손을 계보로 남기고 있다.¹⁾ 이 때문인지 인물 탐구의 기본인 가계 및 관력 등 그의 생애에 대해 소개한 논문 한 편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²⁾ 본고는 한천과 관련 이상의 제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첫 논고이다.

오늘날 제주도 표선면 가시리에는 그의 묘소가 발굴되었고,³⁾ 구전으로 그의 유허지 등이 전하고 있다. 따라서 고고학적 방면에서는 청주한씨 방묘(方墓)에 대해, 민속학적 방면에서는 설촌조(設村祖) 한천에 대해 이미 소개한 글들이 있다. 하지만 문헌에 기반을 둔 역사학적 규명은 아직까지 빈약한 사료로 말미암아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태조~태종) 등 정사 및 당대의 개인 문집에 부분 소개되어 있는 그의 사실들을 모아 재조명하려 한다.⁴⁾ 무엇보다도 한천의 생애 전반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선대와 후대를 포함한 한천의 가계 및 친족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 또 그의 관력과 유배 및 좌주문생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인문집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 규명이 어려운 그의 사상도 당대의 시대적

1) 한천과 관련하여 청주한씨 제주문중회에서 낸 자료로는 한천택(韓千澤)이 기술한 다음의 두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청주한씨의 연원과 역사』(1984), 『서재한공친실록』(1994).

2) 단행본으로 홍순만(洪淳晩)의 『제주에 선비의 얼을 심은 고려유신 한천』(남제주문화원, 2008)이 있다.

3) 1955년 발견되어 현재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385-1번지에 있으며, 2003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60-2호 ‘가시리 설오름 청주한씨 방묘’로 지정되었다.

4) 한천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개인문집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稼亭集』(李穀), 『牧隱集』(李穡)과 ‘傳犀帶’ 및 座主門生の 관계를 알 수 있는 『保閑齋集』(申叔舟), 『敬齋集』(河演), 『雙梅堂篋藏集』(李詹) 등이 있다.

상황을 읽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조명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 더 나아가 한천의 생몰년 추정, 제주 입도 및 시점 규명, 후사 문제까지 제한된 사료 속에서 규명하려 한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는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이 1879년(고종 16)에 지은 「서재한공유허비(恕齋韓公遺墟碑)」가 있다. 한천 관련 금석문 자료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도 한천 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비명에서 논제를 도출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한천 재조명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최소한 문헌 및 금석학적 수준에서 한천을 조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논점들을 소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리하여 향후 한천 연구에 토대가 마련되면 그것이 곧 본고가 갖는 의의일 것이다.

II. 한천의 생애

한천의 생애에 대한 기존의 소개 글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고려사』를 비롯한 정사에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그의 관력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빈약한 그의 자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그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논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고는 『고려사』 열전에 실린 그의 가계(선대)를 살펴보면서 한천의 성장배경과 가풍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의 관력과 유배 생활 등을 통해 그의 정치적 입지와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했던 고려말 정치세력 등을 조명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천의 생몰년 추정, 그의 제주 입도 및 시점 규명, 후사 문제까지 해설이 가능할 것이다. 제한적 사료나마 활용하여 한천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한천의 가계

한천은 민족대백과사전 등에 의하면 생몰년 미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주한씨 제주문중회에서 낸 그의 실록에 의하면 1330년(충숙왕 17)~1403년(태종 3)으로 되어 있다. 그의 숙부(한공의 韓公義)의 장자로 종제였던 유향(柳巷) 한수(韓脩)의 생년이 1333년(충숙 복위2)이므로 최

소한 그보다 먼저 태어났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1400년(정종 2) 조선 개국 후 한천을 판삼사사로 삼고 치사시키는 기록이 있는데⁵⁾, 통상 치사 연령을 70세로 본다면 그의 탄생년은 1330년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제한된 사료 속에서나마 일단 그의 탄생년을 1330년으로 보아 괜찮을 듯하다.

문제는 그의 사망연도이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1403년(태종 3) 한천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⁶⁾ 따라서 이해 그가 사망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사망한 건지 알 길이 없다. 죽은 한천의 재산을 놓고 누이의 아들인 정탁(鄭擢)이 그의 전장과 재물을 빼앗아 점유했다는 기사이다. 이 때문에 한천이 사망하자 곧바로 후손들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해를 사망연도로 추정한 듯하다. 아무튼 그의 생몰년과 관련하여 사료에 적시된 바가 없고, 종친회에서 낸 자료에 객관적 오류를 확인할 길 없어서 한천의 생몰년은 일단 1330년~1403년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한천의 가계는 고조부 한강(韓康), 증조부 한사기(韓謝奇), 조부 한악(韓渥), 부친 한대순(韓大淳)으로 전한다. 이들 모두는 고려사 열전에 입전(한강), 부전(한사기, 한악, 한대순) 되어 있다.⁷⁾ 한천의 성장 배경 및 가풍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여 아래에 간략히 소개한다.⁸⁾

고조부 한강은 1243년(고종 30) 16세에 국자감시를 장원으로 합격한 수재였다. 감찰어사 등 여러 관직을 거쳐 금주(金州, 김해)의 수령이 되었다. 금주는 항상 전부(田賦) 정액을 채우지 못하여 전임수령들이 많이 파면되었는데, 한강이 부임하고는 둔전을 잘 운영하여 곡식 2천여 석을 얻고 백성을 안정시켰다. 그런 공으로 예부낭중이 되었다. 그 뒤 공부시랑, 간의대부, 국자대사성한림학사좌복야에 올랐다. 1281년(충렬왕 7) 성

5)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6월 1일 갑오(甲午), “非功臣而封君者皆罷 以權仲和爲判門下府事致仕 李居仁 權禧 韓藏 崔永沚 慶補 皆爲判三司事致仕.”

6)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5월 21일(정유), “...卒檢校侍中 韓藏 巨富...”

7) 『고려사』 권107, 열전20, 한강.

8) 한천의 선대(4대조)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 열전에 실린 사실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절사가 되어 원나라를 다녀왔고, 지밀직사사관삼사사에 올랐다. 이 때 충렬왕이 한강을 따로 불러 시무책을 내도록 하였고, 그는 시무책을 올려 시행되기에 이르렀다.⁹⁾ 1284년 감수국사관전리사사로 원부(元傅)와 함께 『고금록(古今錄)』을 편찬하였다. 1287년(충렬왕 13) 첨의찬성사수문전대학사세자사를 거쳐 광정대부도첨의중찬에 이르렀다. 1303년(충렬왕 29) 2월 22일 76세로 죽었으며, 문혜(文惠)의 시호가 내려졌다. 한편 한강은 원종과 충렬왕대 여러 차례 지공거(知貢舉)를 역임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과거에 급제시켰다. 1271년(원종 12)에는 성균관대사성으로 지공거가 되어 양순(梁淳) 등 53인을¹⁰⁾, 1275년(충렬왕 1)에는 좌복야로서 최지보(崔之甫) 등 26인을¹¹⁾, 1286년(충렬왕 12)에는 찬성사로서 이부(李搏) 등 31인을¹²⁾ 선발하였다. 이처럼 그의 문생은 100여 명이 넘을 정도였으며, 그는 당대의 문호로 명성을 드날렸다. 고려말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그의 문집에서 한강이 청주한씨 시조 한란(韓蘭) 이후 가장 영예로운 인물로 소개할 정도였다.¹³⁾

증조부 한사기는 과거에 급제한 뒤 좌사의대부, 보문각제학지제고, 간의대부를 역임하였다. 한악과 한영(韓泳)이 그의 아들이다. 처음에 한사기가 독로화(禿魯花)¹⁴⁾가 되어 가족들을 데리고 원나라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영은 황제 측근에서 자라나고 인종(仁宗)을 섬겨 관직이 하남부총관에까지 이르렀다. 한영이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한사기에게는 한림직학사야중대부경거도위가 증직되고 고양현후로 추봉되었다. 목은 이

9) 『고려사』 권107, 열전20, 한강, “康請 修宗廟備樂器 以嚴時祀 禁諸司抑買市物 掩骼埋骸 放生禁屠 止遊田之樂 節肥甘之奉於祔 寒盛暑置漿粥 以賑飢渴.”

10)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과목2) 국자시지역, “元宗十二年五月 大司成韓康 取梁淳等五十三人.”

11)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과목1), “忠烈王元年十月 左僕射韓康 知貢舉 承宣朴恒 同知貢舉 取進士賜崔之甫等二十五人 明經一人及第.”

12)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과목1), “忠烈王十二年十月 贊成事韓康 知貢舉 國子祭酒李益培 同知貢舉 取進士賜李搏等三十一人及第.”

13) 이색, 『목은문고』 권16, 「중대광청성군한시평간공묘지명」, “公姓韓氏 世爲淸州人 遠祖蘭 有功國初 號三韓功臣 其後最盛者曰康 在元王時 掌試成均 相忠烈王 兩知貢舉 中贊致仕 諡文惠.”

14) 독로화(禿魯花) : 고려후기에 몽고 숙위를 위해 인질로 보낸 왕족, 귀족의 자제.

색의 부친인 가정(稼亭) 이곡(李穀)이 정혜공(正惠公) 한영의 행장을 기술하였는데, 이 글에서도 한영의 부친이었던 한사기의 위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¹⁵⁾

조부 한악의 호는 성재(誠齋)인데, 1274년(원종 15)에 출생하였다. 1303년(충렬왕 29)에 좌우위대호군에 오르고, 밀직사사좌사의축전옹양군대호군을 역임했다. 1310년(충선왕 2)에 우대언이 되고, 1313년 사천(泗川)감무로 나갔다가 다시 기용되어 동지밀직사사로 돌아왔다. 1320년(충숙왕 7)에는 선부전서를 지냈으며, 이듬해 지밀직사사가 되어 충숙왕이 원나라에 갈 때 호종하였다. 당시 고려의 왕위를 노리던 심양왕 고(瀋陽王 暲)가 여러 가지로 왕을 참소하였다. 한악이 기묘한 계책을 써서 왕을 위기에서 빠져 나오게 하였으므로, 그 때의 공으로 1등공신이 되었다. 충숙왕은 그에게 철권(鐵券)을 주고, 그의 초상화를 벽상(壁上)에 그리게 하였으며, 상당부원군으로 봉하고 전력좌리공신의 호를 주었다. 그 후 첨의평리와 찬성사를 거쳐, 1330년(충혜왕 즉위)에 삼사사, 이듬해 중찬을 역임하였다. 1340년(충혜왕 복위 1)에는 우정승에 이르렀다. 1342년 5월 69세로 죽으니 사숙(思肅)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그 후 충혜왕의 묘정에 배향케 하였다. 그는 성품이 근면하고 신중하였고 능력과 도량이 있었으며, 매번 무슨 일을 할 때면 세 번 생각해 보고서야 실제 행동에 옮겼으며 몽고어와 한어에 능통하였다.

부친 한대순은 1349년(충정왕 1) 동지밀직사사가 되고 이듬해 판밀직사사를 거쳐 1351년(충정왕 3) 지도첨의사사가 되었다. 그 해 왕이 폐위되고 공민왕이 즉위하자 전왕 때의 권신들이 축출되면서 기장(機張)감무로 나갔으나 이듬해 다시 지도첨의사사에 재기용 되었다. 1355년(공민왕 4) 7월 1일 추충협찬공신광정대부지도첨의사사로 재임 중 죽었다. 한편 목은 이색의 문집에 의하면, 한대순의 아우 평간공(平簡公) 한공의의 묘지명이 전한다. 한공의의 아들인 문경공(文敬公) 한수가 목은의 친구였기에, 한수가 목은에게 자기 부친의 묘지명을 부탁하여 쓴 글이다. 그

15) 이곡, 『가정집』 권12, 「시정혜한공행장」, “考謝奇 本國及第 仕至朝請大夫右司議大夫知制誥 以公貴 … 累贈謝奇 翰林直學士亞中大夫輕車都尉 追封高陽縣侯 … 初 本國遣世家子第爲質子 公之考在選中 遂挈家而來.”

내용 속에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인다.

“사숙공(한약)이 동지밀직전리판서 원경(元卿)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다섯¹⁶⁾을 낳았다. 맏아들 대순은 죽었는데 벼슬이 지도첨의사사였고, 중례(仲禮)와 방신(方信)은 다 정문문학이었으니, 공(한공의)은 차서에 있어 그 둘째였다. 형은 아우를 우애하고 동생들은 형에게 공손하여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이를 흠모하였다.”¹⁷⁾

이 글에 의하면 형이 동생들을 사랑하고, 동생들이 형을 공경하는 우애로움이 잘 나타나 있다. 당대의 문호였고 성균관대사성을 역임했던 유종(儒宗) 목은의 글을 통해 한대순의 자애로운 성품을 간접적으로나마 읽을 수 있다. 부인은 진현관대제학 전신(全信)의 딸인데, 곧 한천의 모친이다.

한천은 이처럼 공신의 가문이요, 누대에 걸친 명문의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위의 4대조에 이르는 한천의 가계를 살펴보면 세 가지 시사점을 읽을 수 있다.

첫째, 그의 선대는 한림학사 및 지제고 등을 역임하였다는 점이다. 이른바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두루 섭렵하여 학문이 깊고 문장이 유려해야 거칠 수 있는 관직이다. 이는 가학(家學)으로 면면히 이어져 한천의 학문적 바탕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외조부도 대제학을 역임했으니 한천은 친가나 외가 모두 학문과 문장에 능한 가문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것이다. 한천 자신도 고려말 예문관대제학을 역임한 사실에서 입증되는 바이다.

둘째, 그의 선대는 간의대부 및 우대인 등을 역임하였다는 점이다. 이른바 간관(諫官)으로 왕과 모든 신하들을 상대로 충직한 비판을 가하는 관직이다. 청요직(淸要職)으로 국정의 잘잘못을 거침없이 논하는 언관(言

16) 목은 이색은 한약의 아들을 다섯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곱이었다. 또한 그의 글에는 장남 대순, 차남 공의, 3남 중례, 5남 방신까지 4명의 인명만 수록하고 있다. 4남인 공연(公衍), 6남인 공서(公瑞), 7남인 방도(方道)의 인명이 누락되어 있다. 목은 이색의 글에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7) 이색, 『목은문고』 권16, 「중대광청성군한시평간공묘지명」, “...思肅 娶同知密直典理判書 元卿之女 生子五人 大淳卒 官知都僉議司事 仲禮方信 皆政堂文學 公於次爲第二 兄友弟恭 時人慕之.”

官)이기에 자신들은 한 점 부끄럼 없어야 활동이 가능한 업무이다. 한천 가풍이 그만큼 절의와 청렴을 중시 여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천도 여말선초 신왕조 개창에 비판적인 ‘충신불사이군’의 정신을 이어간 점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그의 선대 및 숙부, 종제 등은 가정 이곡 및 목은 이색 등 신진 사대부를 이끌었던 당대의 유학자와 교류가 깊었다. 이곡은 한영의 행장을 쓰면서 한사기, 한악 등 한천 선대와 깊은 인연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곡이 지공거였을 때 한악의 손자(한천 숙부인 한공의의 아들 한수)가 급제하여 이곡과 한수는 좌주문생의 관계이기도 하다.¹⁸⁾ 그런 관계로 이색은 한천의 종제인 한수와 어릴 적부터 친구로 지냈다. 한수의 청으로 한공의의 묘지명을 쓰고 있을 뿐 아니라, 한수가 일찍 죽자 그의 묘지명까지 써주고 있다.¹⁹⁾ 한수의 종형인 한천 역시 이색과 더불어 고려왕조와 운명을 함께 했기에, 직접 교류 기록만 없을 뿐 집안 간 깊은 친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려말 성리학을 지도하던 유종 목은과 한천 가문과의 인연은 한천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2. 한천의 관력 및 생애

한천의 등제 및 초기 역임 관직 등은 알 길이 없다. 사료에 처음 등장하는 관직이 전리판서이며, 이미 이때는 그가 지공거로 과거를 주관하며 급제자를 선발하던 때였다. 따라서 그의 관직 진출이 과거를 통해선지, 음직(蔭職)으로 나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로 진출하였음을 추정할 수는 있다. 문한관(文翰官) 및 지공거 등의 관직은 음직 출신이 아닌 과거 출신자가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천은 1350년

18) 이색, 『목은문고』 권15, 「한문경공묘지명병서」, “정해년(1347, 충목왕 3)에 나의 선군(이곡)께서 지공거를 맡으셨을 적에 공(한수)이 과연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15세였다(歲丁亥 吾先君知貢舉 文敬果中高第 時年十五歲也).”

19) 이색, 『목은문고』 권15, 「한문경공묘지명병서」, “嗚呼 吾以文敬之請 嘗銘其考平簡公矣 今又銘文敬 其亦可悲也已.”

대 공민왕 초기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한천의 관력은 총 8회, 유배 2회로 확인된다.

- 1) 1365년(공민왕 14). 전리판서로 국자감시 주재.²⁰⁾
- 2) 1368년(공민왕 17). 신돈 암살 모의 사건 적발시 (밀직)제학.²¹⁾
- 3) 1371년(공민왕 20). 경상도도순문사 제수.²²⁾
- 4) 1376년(우왕 2). 공민왕 시해사건시 홍륜의 친족으로 유배.²³⁾
- 5) 1391년(공양왕 3). 판개성부사 제수.²⁴⁾
- 6) 1392년(공양왕 4). 조선 개국시 유배 및 당시 관직 예문관대제학.²⁵⁾
- 7) 1393년(태조 2). 전조대신 71인 포상 명, 개국원종공신으로 녹선.²⁶⁾
- 8) 1400년(정종 2). 공신이 아니면서 봉군한 자는 모두 파하라는 명, 관삼사사로 치사.²⁷⁾
- 9) 1403년(태종 3). 사후 호칭 검교시중.²⁸⁾

처음 등장하는 관직은 전리판서이다. 35세로 추정되던 1365년 10월에 국자감시를 주재하여 고부(古賦)의 과목으로 민안인(閔安仁) 등 55인을, 십운시(十韻詩)의 과목으로 임간(林幹) 등 41인을 뽑아 모두 96인을 과거에 합격시켰을 때 한천의 관직이 전리판서였다.²⁹⁾ 따라서 그가 이미 30대 중반에는 조정의 정3품 당상관 반열에 올랐으며, 국시(國試)를 주재할 정도의 권위 있는 학자로 인정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뿐만

20)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21)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7년.

22) 『고려사』 권43, 공민왕 20년 2월.

23) 『고려사』 권131, 열전44, 홍륜, 신우 2년.

24)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1.

25) 『고려사』 권46, 공양왕 4년 7월.

26)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7월.

27)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6월 1일.

28) 『태종실록』 권, 태종 3년 5월 21일(정유).

29)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과목2), 공민왕 14년 10월, “典理判書 韓臧 取古賦 閔安仁等五十五人 十韻詩林幹等四十一人.”

아니라 고려말 지공거와 급계자 사이는 좌주와 문생으로 표현되는 끈끈한 학연으로 맺어져 있었다. 한천이 좌주로 100명에 가까운 문생을 배출했다는 사실은 당대 그의 정치적, 학문적 위상이 대단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1368년 10월 한천은 중대한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공을 세우게 되었다. 전 밀직부사 김정(金精)이 김흥조(金興祖), 조사공(趙思恭), 유사의(兪思義), 김계안(金齊顔), 김귀보(金龜寶), 이원림(李元林), 윤희종(尹希宗) 등과 모의하여 당시 권신이던 신돈(辛旽)을 배어 죽이기로 하고 비밀리에 암살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사실을 조사공이 자기와 친한 전 홍주목사 정운(鄭暉)에게 누설했다. 정운은 또 자기와 친한 제학(提學) 한천에게 알렸고, 한천은 정운과 더불어 평소 잘 알고 있는 시중 이춘부(李春富)에게 알려 이춘부로 하여금 왕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왕은 즉시 그들 모두를 순군옥에 가두고 모두 곤장을 쳐서 귀양 보냈다. 그러나 신돈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 김정, 김흥조, 조사공, 유사의 등을 뒤쫓게 하여 도중에서 그들을 목을 매어 죽게 하였다.³⁰⁾ 한천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은 당시 신돈이 공민왕의 신임을 얻고 전횡이 심하여 조신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암살을 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 뒤 1371년(공민왕 20) 2월 한천은 경상도도순문사로 제수되었다.³¹⁾

관직에서 승승장구하던 한천에게도 첫 시련이 닥쳤다. 1374년(공민왕 23) 9월에 발생한 공민왕 시해사건이었다. 환관인 최만생(崔萬生)과 자제위(子弟衛) 소속 홍륜(洪倫)이 공민왕을 시해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 외에 연루자로서 당시 자제위 총관 김흥경(金興慶) 및 소속 인물인 권진(權璿), 한안(韓安), 홍관(洪寬), 노선(盧瑄) 등을 모두 처형시키고, 그들의 부형들은 유배되었다. 하지만 2년 뒤인 1376년(우왕 2) 12월 이 문제가

30)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7년 10월, “辛旽 殺前密直副使金精 金興祖 趙思恭 兪思義等 初精等 與金齊顔 金龜寶 李元林 尹希宗等 謀誅旽 思恭 洩謀於所善前洪州牧使鄭暉 暉與提學韓載 告侍中李春富 春富入告王 乃命繫巡軍獄 並杖流于外 旽追遣人於路 皆縊殺之.”

31) 『고려사』 권43, 공민왕 20년 2월 갑자, “以韓載爲慶尙道都巡問使 楊伯顔爲全羅道都巡問使.”

재론되었다. 집의 김승득(金承得)과 헌남 안정(安定)이 번갈아 가며 상소를 올린 것이다.³²⁾ 이로 말미암아 유배되었던 부형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처형당했으며, 관련 친족들을 새로 유배 보냈다. 즉 홍륜의 친족 홍사원(洪師瑗), 홍언유(洪彦猷), 홍언수(洪彦修), 한천, 유용생(柳龍生)과 권진의 친족 권호(權鎬), 권적(權適), 권주(權鑄), 권한(權澣), 권담(權湛) 및 한안의 친족 한수, 한리(韓理) 등을 먼 고을로 유배 보냈고, 최만생과 홍륜은 시해 주범이었기에 이종, 고종의 자식까지 아울러 유배 보냈다.³³⁾ 이때 한천의 유배지가 어디인지 알 수는 없고, 먼 고을로 유배되었다는 기록만 나타난다. 다만 특이한 사실은 한천의 연좌제 사유가 종제였던 한안 때문이 아니라, 생질이었던 홍륜의 친족이었기 때문이었다. 공민왕 시해와 관련된 자제위 소속 인물들 중 홍륜은 누이의 자식이었고, 한안은 숙부(한방신)의 자식이었다.

그 후 한천 관련 기록은 15년 동안 확인되지 않는다. 유배에서 언제 사면 받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1391년(공양왕 3) 12월 한천은 판개성부사로 등용된다. 수도를 책임지는 주요 관직인 만큼 이때는 이미 유배에서 풀려난 지 오래되고, 여타 관직을 거쳐 판개성부사로 등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특이한 사실은 한천의 등용과 함께 이색, 우현보(禹玄寶)가 부원군의 봉작을 받고 있는 점이다.³⁴⁾ 그들은 1390년(공양왕 2) 5월 윤이(尹彝), 이초(李初)의 옥사로 유배되었던 인물들이었다. 이성계와 정도전(鄭道傳), 조준(趙浚) 등 사전개혁 세력과 대척점에 있었던

32)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2년 12월, “執義金承得 獻納安定等 交章請殺益妃所生子 禍從之 妃秘之久乃出 女也 又請鞠妃 禍不許曰 是彰先君之失也 又請誅崔萬生 洪倫 父母妻子同產 其親叔姪堂兄弟 削職遠流 永不敘用 又言大逆之賊 非特萬生倫也 其洪寬權瑑韓安盧瑄等 父母妻子同產 親叔姪堂兄弟 竝宜一體施行 皆從之 於是守侍中李仁任 贊成事睦仁吉 評理邊安烈 政堂文學洪仲宣 判密直王安德 密直副使禹仁烈等 以爲賊臣父兄 皆已遠流 請免其死 禍不從 仁吉曰 臣從先王在元朝十有一年 未聞以夫罪而戮妻也 禍許之 萬生之妻已死 倫妻臨刑得免.”

33) 『고려사』 권131, 열전44, 홍륜, “(辛禍二年) … 流倫族洪師瑗 洪彦猷 彦修 韓蕝 柳龍生 瑑族權鎬 權適 權鑄 權澣 權湛 安族韓脩 韓理等 遠州 以萬生倫 首惡 并流姨子姞子.”

34)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3년 12월, “以李穡爲韓山府院君 禹玄寶爲丹山府院君 韓蕝判開城府事 姜淮伯爲政堂文學兼大司憲 尹就知密直司事 安景恭爲藝文館提學 禹洪壽同知密直司事 成石塔爲密直副使.”

인물들과 함께 한천이 주요 관직을 제수 받은 것이다. 당시는 정몽주(鄭夢周), 이색을 중심으로 이성계 견제 세력이 힘을 넓혀가던 때이다. 따라서 한천은 고려말 정몽주, 이색 등과 함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년 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될 때 한천은 예문관대제학으로 유배를 당한다. 공양왕을 폐위시키며 이성계가 즉위한 직후 처음 보이는 기사여서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다음에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회빈문(會賓門) 밖에서 단양군 우성범(禹成範)과 진원군 강희계(姜淮季)를 배었다. 태조(이성계)가 그것을 듣고 대노하여 중지시켰으나 시간이 늦었었다. 찬성사 성석린(成石璘)과 정당문학 이원굉(李元紘), 청성군 강시(姜耆), 예문관대제학 한천, 밀직제학 성석용(成石瑑)을 귀양 보냈다.”³⁵⁾

위에서 한천이 유배된 곳이 어디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한천이 바로 이때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키며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제주 입도 사실을 전하는 자료로는 면암 최익현의 「서재한공유허비」³⁶⁾와 김봉현(金奉鉉)의 『제주도유인전(濟州島流人傳)』³⁷⁾ 등이 있다.³⁸⁾ 입도 소재지 표현도 최익현은 ‘제주’라 하였고, 김

35) 『고려사』 권46, 공양왕 4년 7월, “斬丹陽君禹成範晉原君姜淮季于會賓門外 我太祖聞之大怒止之不及 流贊成事成石璘 政堂文學李元紘 菁城君姜耆 藝文館大提學韓巖 密直提學成石瑑.”

36) 최익현, 「恕齋韓公遺墟碑」, “... (恭讓王)四年壬申七月 王遜于原州 斬丹陽君 禹成範 晉原君 姜淮季 大提學 韓巖于濟州者 此實錄也 足徵百世矣...”

37) 김봉현, 『제주도유인전』(국서간행회, 1956), “이때 찬성사 성석린, 정당문학 이원굉, 청성군 강시, 대제학 한천, 밀직제학 성석용 등의 고려 충신은 섬으로 유배되었다. 이성계의 등극에 끝내 불복한 한천은 공양왕 4년(1392) 7월 제주도 정의현에 추방되었다.”

38) 최익현의 「서재한공유허비」는 1879년(고종 16) 음력 8월 기술하였으며, 김봉현의 『제주도유인전』은 1956년 일본에서 간행되었다. 두 자료 모두 한천의 제주 입도 시점은 1392년(공양왕 4) 7월 유배될 때라 했지만,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 제시는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청주한씨 제주문중회에서 발간한 「서재한공친실록(恕齋韓公藏實錄)」에서도 한천의 제주 입도를 위의 자료와 동일 시기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종친회에서 최근(1994년)에 펴낸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역사 사실

봉헌은 아예 ‘제주도 정의현’이라고 하였다.³⁹⁾ 이 때문에 한천의 제주 입도는 고려왕조의 멸망과 때를 같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최익현의 비문은 당시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이다. 후손들의 구전만 듣고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없다. 비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실록으로서 후세에 가히 고증할 만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대목은 당시 청주한씨 제주총친회에서 갖고 있던 자료를 최익현이 인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왜냐하면 『고려사』에는 유배 보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장소가 어디인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한천의 입도 시기까지 논란의 소지가 있게 되었다. 1392년 유배 당할 때인지, 아니면 1년 뒤 유배가 풀리고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 유망인의 형태로 입도했는지의 문제이다. 후자의 가능성이 큰데, 이유는 조선 개국 후에도 그의 관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93년(태조 2) 7월 29일(임신)의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조가) 교서에 이르기를, “전 판삼사사 강인유(姜仁裕), 전 판개성부사 한천 등 71인은 신씨(辛氏)가 왕위를 도적질하여 세상이 극도로 어지러워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던 때부터 세상의 안위를 모두 나에게 뜻을 두고서, 도덕을 가르쳐서 깨우치고 좋은 평판을 선포하여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공이 또한 작지 않았다. … 포상하는 은전을 유사는 거행하라.”하였다.⁴⁰⁾

물론 위의 기사는 고려의 대신들을 회유, 포섭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천을 포함하여 71인의 포상 교서가 내려지고 있는데, 이때 한천의 유배는 이미 풀렸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유배 중인 인물에게 포상의 교서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천은 조선 개국 직후 유배되었다

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9) 최익현과 김봉현이 본인의 기술에서 한천의 제주 입도 사실을 전할 때 각각 ‘제주’, ‘제주도 정의현’이라고 말한 데 대한 근거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40) 『태조실록』 권4, 태조2년 7월 29일(임신), 敎曰 “前判三司事姜仁裕 前判開城府事韓臧等七十一人 自辛氏竊位 亂極思治之際 而安危皆注意於予 諭德宣譽 駟致今日 功亦不細矣 … 其褒賞之典 有司舉行.”

가 곧 사면되고, 1년 뒤에는 포상의 교서를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한천이 거부했거나, 이미 유망의 형태로 제주에 내려가 소재불명 상태였을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일단 유배인의 신분은 벗어났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400년(정종 2)에는 공신이 아니면서 군(君)으로 봉작 받은 사람은 모두 봉작을 없애고 치사(致仕)시키도록 한 기록에서 한천이 등장한다.

“권중화(權仲和)를 관문하부사로 삼고 치사하도록 하였으며, 이거인(李居仁), 권희(權禧), 한천, 최영지(崔永祉), 경보(慶補) 등을 모두 관삼사사로 삼고 치사하도록 하라.”⁴¹⁾

통상 ‘치사’는 70세 이상의 관리가 관직에서 물러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로 미루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까지도 한천이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의 연령이 70세가 막 넘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1330년이 한천의 생년이라는 추정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몰년도 최소한 1400년 이후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1403년에 한천은 이미 죽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몰년은 1400년~1403년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때(1400년) 한천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점이다.

한천의 제주 입도 시기는 1392년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면 이미 서울에는 한천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소재불명 또는 제주에 가있던 한천에 대해 조선왕조가 과연 ‘치사’의 명을 내렸겠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천의 제주 입도를 1392년이 아닌 1400년 이후에서 1403년 사이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분석이 아닐까 추정한다.

한천 기록이 마지막으로 등장할 때는 1403년(태종 3) 5월 21일의 『태종실록』 기사이다. 이때는 이미 죽은 뒤였으며, 관력이 검교시중으로 되어있다. ‘검교(檢校)’직은 고려후기에 남발된 실직(實職)이 아닌 훈직(勳職)으로 수여했던 것으로, 조선 태종 때까지 존속했던 호칭이었다.⁴²⁾ 한

41)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6월 1일 갑오(甲午), “非功臣而封君者皆罷 以權仲和爲判門下府事致仕 李居仁 權禧 韓藏 崔永祉 慶補 皆爲判三司事致仕.”

천의 사망 전후로 조선 왕조가 그에게 영예 수여 차원에서 내린 관호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의 훈직을 내렸다는 점에서 고려유신 한천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기사는 향후 큰 논란을 빚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중요한 사료로 지목되는 데 다음에 기사 전문을 제시하고 살펴보기로 한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청성군 정탁(한천 둘째 매부 정추의 차자)은 두 번이나 공신이 되었고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으므로 녹질이 풍족하고 토전에서 나오는 수확량이 많아 그와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검교시중 한천이 거부로 이어받을 후사가 없었는데**, 정탁이 여러 조카들 중 형제의 차서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위력으로 그의 전장과 재물을 빼앗아 점유하였습니다.”⁴³⁾

위의 기록으로 볼 때 개경의 한천 본가 재산은 엄청났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한천 누이의 둘째 아들로, 한천에게는 내종질이 되는 정탁이 가로채버린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한천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육지에서의 청주한씨 족보에서는 한천 이후 후사가 없는 것으로 조선시대 내내 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⁴⁴⁾

하지만 최익현의 「서재한공유허비」에 의하면, “한천에게는 두 아들 말(沫)과 제(濟)가 있으며, 이는 한천 부인인 광산김씨 족보에 한천과 그의 두 아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고, 제주 관적(官籍)에도 한천의 후손임을 고증할 수 있다.”⁴⁵⁾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제주시 표선면 가시리에 한천의 묘소가 존재하며, 묘지명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여말선초 왕조 교체기 한천은 조선 개국에 참여치 않으면서 절의를 지키는 고려유신으로

42) ‘검교’직은 1416년(태종 16)에 동서반유록검교직(東西班有祿檢校職)이 폐지되고, 1443년에 내시부검교직(內侍府檢校職)이 폐지되었다.

43)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5월 21일 정유(丁酉), “司憲府上疏曰 清城君 鄭擢 再爲功臣 致位宰輔 其祿秩之豐 土田臧獲之多 無與比者 卒檢校侍中韓臧 巨富而無嗣 擢在諸姪之中 不顧兄弟之序 惟以威力 奪占其田庄財物.”

44) 최익현, 「서재한공유허비」, “...獨於韓氏內地全譜 以無後懸錄 何故歟...”

45) 최익현, 「서재한공유허비」, “...生二子 長曰沫 次曰濟 金氏舊譜 既載公與二子 濟州官籍 又可考公子姓...”

남기를 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동행하고 육지의 한문(韓門)과도 결별한 채 속세를 피해 먼 변방 제주로 유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의 4대 후손인 한계로(韓繼老)의 묘비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⁴⁶⁾

Ⅲ. 한천의 인맥과 사상

한천의 인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계를 비롯한 친족 집단이다. 둘째는 지공거를 역임했기에 좌주(座主)로서 그의 문생(門生)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전서대(傳犀帶)’의 글이 전하여 좌주 한천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 외에 여러 관직을 역임하며 그와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 또는 고려말 주요 정치적 사건 때마다 부침을 함께 했던 인물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고 많은 시간도 소요되어 차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여기서는 두 갈래에 대해서만 집중 점검하기로 한다. 또한 한천의 사상에 대해 오늘날 조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부득이 당대 그와 교류하였던 이들의 문집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천의 사상을 조명할 수밖에 없다.

1. 한천의 친족

한천의 가계는 다분히 복잡한 편이다. 가까운 친가로 6명의 숙부와 11명의 종제가 있었다.⁴⁷⁾ 또한 누이의 남편으로 2명의 매부와 4명의 생질이 있었다.⁴⁸⁾ 숙부 중에는 한공의와 한방신이, 종제로는 한공의의 자식인 한수와 한리 및 한방신의 아들인 한안이 한천과 직간접적으로 큰

46) 한계로 묘비명, 『昭威將軍韓公繼老 配淑人南平文氏附右之墓』, “…高祖諱葳 號恕齋 藝文大提學 當麗運訖 不事二姓 避入耽羅仍居焉 … 世守遺訓 甘遜不仕…”

47) 한천의 숙부 6명을 차례로 소개하면 한공의, 한중례, 한공연, 한방신, 한공서, 한방도가 있다. 또한 종제 11명으로는 한수, 한리, 韓齊(이상 3명 한공의 소생), 韓柱(한공연 소생), 韓休, 韓安, 韓寧, 韓烈, 韓任(이상 5명 한방신 소생), 韓慶(한공서 소생), 韓祉(한방도 소생)이다.

48) 한천의 매부 2명은 鄭樞와 洪師禹이며, 이들 소생인 생질 4명은 각각 鄭摠, 鄭擢과 洪彝, 洪倫이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처남매부 사이였던 정추(鄭樞)와 홍사우(洪師禹) 및 이들의 두 아들 정충, 정탁 및 홍이, 홍륜도 한천과 관련이 깊다. 이들 중 한안과 홍륜은 공민왕 시해 사건과 관련된 자제위 소속으로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한천의 종제인 한수와 한리, 매부였던 정추와 홍사우, 생질인 정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수는 15세에 과거(진사시)에 급제하여 이색의 부친인 이곡을 좌주로 모시게 되었다. 후에는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에게 경사(經史)를 두루 배웠으며 또 글씨 쓰는 법까지 익혀 해서와 초서에 오묘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전한다.⁴⁹⁾ 공민왕의 신임을 받을 때 신돈을 멀리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후 신돈이 제거된 뒤 공민왕은 그를 보고 앞일을 내다보는 밝은 식견이 있다고 하였다.⁵⁰⁾ 1376년(우왕 2)에는 동지공거로 정충(鄭攄)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기도 하였다.⁵¹⁾ 이 때문에 한수와 정충은 좌주문생의 관계였는데, 정충은 바로 한천의 매부였던 정추의 장남이다. 즉 종제가 생질을 선발한 셈인데, 목은의 평가는 오히려 당시에 인재를 제대로 뽑았다고 전하고 있다.⁵²⁾ 52세의 젊은 나이에 죽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사망을 아까워하였으며, 국가에서는 장례비용을 후하게 주었다. 그는 학식이 있었고 행동을 의리에 맞게 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를 존중히 여겼다.⁵³⁾

같은 할아버지인 한악의 장남인 한대순과 차남인 한공의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성장하며 학문 탐구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러 방면에서 찾아진다. 한천과 한수는 각각 공민왕, 우왕 때 밀직제학을 역임했으며, 예문관대제학 및 수문전학사를 지내 문한관

49) 이색, 『목은문고』 권15, 「한문경공묘지명병서」, “從益齋先生讀左傳史漢 作字真草 皆入妙.”

50) 『고려사』 권107, 열전20, 한강 부 한수, “辛旽方得幸於王 其跡甚秘 脩知之密啓 旽非正人恐致亂 願上思之 非臣誰敢言 … 旽敗王曰 脩有先見之明.”

51) 『고려사』 권73, 선거1(선장), “辛禡二年 政堂文學洪仲宣 知貢舉 知密直韓脩 同知貢舉 取進士 賜鄭攄等三十三人及第.”

52) 이색, 『목은문고』 권15, 「한문경공묘지명병서」, “歲(丙辰) 夏五月 同知貢舉 取判書鄭攄等三十三人 時稱得士.”

53) 『고려사』 권107, 열전20, 한강 부 한수, “卒年五十二 人皆惜之 官庀葬事 學識行義 爲世所重.”

을 역임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들의 문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때문인지 둘 다 지공거를 지내 문생을 거느리기도 하였다. 그만큼 깊은 학식을 지녀 존경 받는 인물들이었다.

더구나 한수를 통해 이색과의 교류도 짐작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색은 한수와 친하게 지냈으며, 한공의와 한수 부자의 묘지명을 모두 지었다. 그 과정에서 이색과 한천과의 접촉과 교류는 자연스레 잦았을 것으로 본다. 이색과 한천은 동시대를 살았던 동년배로써 학문적 수준이 깊은 당대 성리학자라는 공통점도 있다. 또 조선 개국 후 불사이군의 입장을 견지하며 낙향하여 은사(隱士)로 지냈다는 공통점도 있다. 물론 지공거를 역임하여 많은 문생을 보유하고 따라서 관리나 선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했다. 특히 이색은 공민왕대 이후 유종으로 불리며 사실상 신진사대부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한천은 이색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리학 연구 풍토에도 함께 매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의 아우인 한리도 주목할 만한 인물과 인연을 이어갔다. 즉 정몽주의 딸이 한리의 큰아들 한승안(韓承顔)에게 시집와 한리에게는 며느리가 되었다. 정몽주는 한천의 종제인 한리와 사돈을 맺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몽주는 한천과도 내종(內從) 사돈이 된다.

고려왕조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절의의 신하 정몽주와 이색은 한천의 종제였던 한리와 한수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자연스레 한천과의 교류 역시 빈번했을 것이며, 따라서 여말선초 이들은 정치적 학문적 동지로 끈끈히 맺어진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천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다. 따라서 한천과 처남매부 사이였던 인물로 정추와 홍사우가 있다. 그들의 아들들인 정충과 정탁 및 홍륜 역시 한천과 관련이 깊다. 이 중 홍륜은 공민왕 시해사건의 주범으로 한천은 친족이라는 이유로 유배 당하기도 했다. 또한 정탁은 한천 사후 한천의 재산을 탈취하여 사헌부의 지탄을 받고 시골로 방축 당했던 인물이다. 정충 역시 한천의 종제인 한수가 지공거로 그를 선발하여 좌주문생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천의 매부가 되는 정추는 신돈이 활약할 당시 좌사의로 있었다. 마침 대궐에서 문수회가 열렸는데 신돈이 재신들의 반열에 앉지 않고, 왕

과 나란히 사이도 두지 않고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보고 참다못해 우정언 이존오(李存吾)와 더불어 극간하는 장문의 상소를 올렸다.⁵⁴⁾

“예(禮)는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정하는 것이니, 진실로 예가 없다면 무엇으로 왕과 신하의 기준을 삼으며,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기준을 삼으며, 무엇으로 나라와 집의 기준을 삼겠습니까? … (신돈은) 대궐 뜰에 나아가서도 무릎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고, 항상 말을 타고 흥문에 드나들며, 전하와 호상(胡床)에 나란히 기대고 있으며, 집에 있을 때에는 재상이 뜰아래서 절하면 그대로 앉은 채 받았습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최항(崔沆), 김인준(金仁俊), 임연(林衍)이라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 신돈이 은상을 주고 형벌을 주며, 전하와 대등한 예를 쓰니 이는 나라에 두 왕이 있는 격입니다. … 송나라의 사마광(司馬光)이 말하기를, ‘기강이 서지 않으면 간웅이 야심을 내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그런즉 예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⁵⁵⁾

공민왕은 상소문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불살라 버리라”고 명하고 크게 노하여 정추와 이존오를 불러 꾸짖고 순군옥에 가두어 국문하도록 했다. 하마터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뻔 했다. 이때 첩서밀직 이색이 찬성사 이춘부에게 “태조 이래 오백년 동안 죄가 아무리 커도 한 사람의 간관(諫官)도 죽인 일이 없다”고 하여 겨우 목숨만은 부지하게 되었다.⁵⁶⁾ 한천의 매부였던 정추는 이처럼 임금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강직한 성품의 인물이었다.

또 다른 한천의 매부는 홍사우이다. 그는 시중 홍언박(洪彦博)의 셋째 아들로 벼슬이 삼중대광지밀직사사에 이르렀으며, 남양군에 봉해진 고려

54)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5년 4월, “左司議鄭樞 右正言李存吾 上疏曰 臣等伏值三月十八日 於殿內 設文殊會 領都僉議辛旽 不坐宰臣之列 敢與殿下並坐 間不數尺 國人驚駭 罔不洵洵.”

55)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5년 4월, “夫禮所以辨上下 定民志 苟無禮焉 何以爲君臣 何以爲父子 何以爲國家乎 … 及進闕庭 膝不少屈 常騎馬 出入紅門 與殿下 並據胡床 在其家 宰相拜庭下 皆坐待之 雖崔沆 金仁俊 林衍之所爲 亦未有如此者也 … 旽旣作福作威 又與殿下抗禮 是國有兩君也… 宋司馬光曰 紀綱不立 奸雄生心 然則禮不可不嚴.”

56) 『고려사』 권112, 열전25, 이존오, “…讀未半 王大怒 遽命焚之 召樞存吾面責 … 下巡軍獄 命贊成事李春富 簽書密直李穡 鞫之 … 穡謂春富曰 … 然我太祖以來 五百年間 未嘗殺一諫官 得免.”

의 중신이었다. 일찍이 경상도도순문사가 되었는데 청렴 근검했으며, 스스로 언동을 조심하여 정사를 바로 잡으니 백성과 관리들이 모두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다. 당시 구산현(龜山縣, 창원시) 삼일포(三日浦)로 쳐들어온 왜구를 물리쳐 큰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뒤에 전라도도순문사가 되었는데, 이때 아들 홍륜의 공민왕 시해사건이 발생했다. 홍륜은 즉각 처형되었고, 홍사우는 큰 아들 홍이와 함께 합주(합천)에 유배 되었다가 얼마 뒤 큰아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2. 한천의 문생

다음은 한천을 좌주로 모셨던 문생들을 살펴본다. 한천은 1365년(공민왕 14) 전리판서로 지공거가 되어 국자감시를 주재, 총 96인을 선발하였다. 부(賦)로 민안인 등 55인, 시(詩)로 임간 등 41인의 문생을 배출시켰다.⁵⁷⁾ 『고려사』의 이 기록에서는 민안인과 임간 2명의 이름만 나오지만, 이첨(李詹)의 『쌍매당협장집(雙梅堂篋藏集)』에는 본인과 함께 사천 출신의 김윤덕(金潤德)도 한천의 문생이라고 밝히고 있다.⁵⁸⁾ 100여 명에 가까운 문생들이 있었는데, 현재 확인되는 한천의 문생은 민안인, 임간, 이첨, 김윤덕 4명이다. 이들 중 임간과 김윤덕에 대해서는 전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 따라서 민안인과 이첨을 중심으로 이들의 생애 및 사상을 간략히 살펴본다.

민안인(1343~1398)은 한천 문하에서 진사시에 등제한 후 1374년(공민왕 23)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모두 관직을 띠고 제고를 관장하였다는데, 특히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14년이나 맡아 근실하다는 평판을 들었다.⁵⁹⁾ 민안인이 성실하며 문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개국 후에는 명나

57) 본고 주)29 참고; 洪榮義, 『고려말 정치사 연구』, 해안, 2005, 150~155쪽 재인용.

58) 이첨, 『쌍매당협장집』 권22, 잡록, “金潤德 泗州鄉貢進士也 與余俱出於恕齊韓公之門”; 申千湜,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학맥』, 경인문화사, 2004, 609쪽 재인용.

59) 권근, 『양촌집』 권39, 묘지류, 「~민공묘지명병서」, “... 皆帶館職掌制誥 又任文書應奉司 積十四年之久 人以勤稱.”

라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성균관좌주 및 평양교수로 근무하며 유학 진흥과 유교 의례 보급에 공헌하였다. 특히 1935년 한성에 종묘가 세워지면서 예악정비가 요청되자 전고(典故)에 밝다 하여 왕의 친제(親祭)를 위해 대례의 완비에 공헌하였다.

민안인의 묘지명을 써주며 친구로 자임했던 양촌(陽村) 권근(權近)은 “그는 성품이 솔직하고 성실하며 인정이 많고 검소한데다가 학문을 즐기고 옛 것을 좋아하였다. 서책을 많이 쌓아 놓고 아침저녁으로 열람하면서 유학을 독실하게 탐구하고 이단에 현혹되지 않았다. 남에게 청탁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가산을 다스리지 않았다. 대충 하는 언행에도 반드시 옛 것을 사모하여 현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자못 고달픔을 당한다는 비방이 있었으나 조금도 변하는 기색이 없었다.”⁶⁰⁾고 전한다.

한천을 좌주로 모시면서 고려말 관직을 함께 했던 민안인은 강직한 성품에 청렴결백한 학자적 생활을 지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좌주와 달리 고려에 이어 조선까지 관직을 이어가긴 했지만,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학자로서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영위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첨(1345~1405)은 1365년 한천의 문하에서 성균관시에 합격하였고, 1367년(공민왕 16) 이색이 성균관대사성으로 있을 때 그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368년 문과에 급제하면서 예문검열로 관직생활을 하였다. 우정언, 우헌납 등 간관으로 활동하였으며, 1375년(우왕 1)에는 당시 권신이었던 이인임(李仁任), 지윤(池堧)을 탄핵하다가 10년간 유배되기도 하였다. 1388년 유배에서 풀려나 우상시, 좌대언, 성균관대사성을 역임했다. 공양왕 즉위 초 왕에게 올린 군주의 아홉 가지 규범에 대한 글은 경사를 두루 인용하며 진언한 명문으로 전문이 고려사 그의 열전에 실려 있다.⁶¹⁾ 1391년(공양왕 3) 김진양(金震陽)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유배되

60) 권근, 『양촌집』 권39, 묘지류, 「~민공묘지명명서」, “... 公性質直且愿 敦厚勤儉 嗜學好古 多畜群書 晨夕披閱 篤信斯道 不惑異端 ... 不喜干謁 不理家產 率所言動 必慕古昔 不肯苟同於時 頗有負倦之謗 不小變也.”

61) 이첨은 공양왕 즉위 후 그에게 『시경』, 『서경』, 『주역』, 『논어』, 『중용』, 『구당서』, 『정관정요』 등 경사를 수십 곳 인용하면서 “(李)詹進九規 一曰養德~ 二曰慮事~ 三曰改過~ 四曰敦本~ 五曰謙己~ 六曰施仁~ 七曰比類~ 八曰明政~ 九

었다가, 조선 개국 후 1398년(태조 7) 이조전서로 등용되었다. 1400년(정종 2), 1402년(태종 2) 두 차례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특히 두 번째 방문은 명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때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를 인정하는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고쳐주도록 주청하였다. 이후 지의정부사겸대사헌, 예문관대제학을 역임하였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하륜(河崙) 등과 함께 『삼국사략(三國史略)]을 찬수했고, 소설 『저생전(楮生傳)]을 지었다.

한편 ‘전서대(傳犀帶)’와 관련해서도 한천과 이첨과의 관계에 대해 알려진 바가 있다.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의하면, “국초로부터 삼공(三公)이 서로 전하는 서대(犀帶)⁶²⁾ 하나가 있었다. 반드시 문생에게 전하였는데,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마땅한 사람을 얻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기롱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경솔히 전수하지 않았다.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에 이르러 문희공(文僖公) 신석조(辛碩祖)에게 전하였는데 문희공의 벼슬이 겨우 정2품에 그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띠가 마침내 전해지지 못하였다.”⁶³⁾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신숙주(申叔舟)의 『보한재집(保閑齋集)]에 의하면 학사들이 서로 전하던 서각대가 한천이 이첨에게 전하면서 인물들이 소개되기 시작됐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처음에 시중인 서재 한천은 학사들이 서로 전해 오는 서각대(犀角帶)를 문생인 쌍매당 이첨 선생에게 주었다. 이 선생은 임종할 때에 아들인 소축(小畜)에게 유언하기를 ‘서재가 전해 준 서각대를 내가 보관했다가 내 문생 중에 장시관(掌試官)이 되는 자가 있으면 전해 주라.’ 하였다. 영상인 진산(晉山) 하연이 병오년(1426년, 세종8) 생원시 참시관이 되었는데, 취산(鷲山) 신석조가 장원이 되었다. 경오년(1450년, 세종32) 가을에는 하연이 장시관이 되었는데, 신석조가 부제학으로 참시관이 되었다. 하연이 시와 병서를 지어 서각대를 신석조에게 전해 줬으며, 신석조 또한 차운하여 시권을 만들어 지금 나(신숙주)에게

曰保業~”의 진언을 올렸다(『고려사』 권117, 열전30, 이첨).

62) 서대(犀帶) : 조선시대 1품의 벼슬을 가진 관리가 허리에 두르던 무소뿔로 장식한 띠.

63) 서거정, 『필원잡기』 권2, “自國初 有三公相傳犀帶一腰 傳必門生傳之得人則何如 或失人則爲世所譏 故不輕傳授 至河文孝公演 傳辛文僖公碩祖 文僖位纔正二品而卒 帶遂不傳.”

전했다.”⁶⁴⁾

위의 사료에 의하면 ‘전서대’의 연결고리는 ‘한천→이침→?→하연→신석조→신숙주’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하연의 『경제집(敬齋集)』에 의하면 이침과 하연 사이에 황희(黃喜)와 허조(許稠) 두 사람이 더 소개되어 있다.

“국초로부터 삼공이 서로 전하는 서대 하나가 있었다. 반드시 문생에게 전하였는데, 익성공(翼成公) 황희와 문경공(文敬公) 허조가 서로 전하다가 하연에게 이르렀고 이때 하연은 문희공 신석조에게 전하였는데 그 후로는 서대가 다시 전하지 않았다.”⁶⁵⁾

위의 글에서 신석조에게 전했던 서대가 그 후 다시는 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신숙주의 『보한재집』에 의하면 신석조가 자신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집의 내용은 그 사실 여부를 확실히 모른 채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숙주에 의하면 이 서대는 다시 권람(權擧)에게 전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그 후 ‘전서대’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사실은 전하는 바가 없게 되었다.

“정통 무오년(1438, 세종20) 봄 처음으로 진사시를 개최하였는데, 나는 다행히 장원으로 뽑혔다. 이때 취산 신석조가 집현전고리로서 참시관이 되었었다. 신석조는 기묘년(1459) 겨울 개성유수로 있다가 별세하시니, 공의 아들인 수담(壽聃)이 3년상을 마치고는 나를 찾아와 아울러 공의 유명을 말하고 시권과 서각대를 전달하였다. … 좌의정 길창군 권람이 경오년(1450) 가을 문과 시험에 장원할 때에 나는 외람되게 참시관이 되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다. 나는 현

64) 신숙주, 『보한재집』 권9, 칠언사운, 「차운제하진산전서대시권명소서, “初侍中恕齋韓臧以學士相傳犀帶授門下進士雙梅堂李先生簷先生臨終命子小畜曰恕齋所傳犀帶汝藏之待我門生中掌試者傳之及晉山河領相演參掌丙午生員試鷺山辛公碩祖爲狀元至庚午秋河晉山掌試鷺山以副提學參試晉山題詩并序傳犀帶於鷺山亦次韻爲卷傳於僕云.”

65) 하연, 『경제집』 권1, 시, 「증집현전부제학신석조위전서대병시, “自國初有三公相傳之犀帶一腰傳必門生黃翼成喜許文敬稠相傳至先生至是傳辛文喜其後帶不復傳.”

재 권공과 함께 의정부의 녹을 먹고 여러 시험을 함께 맡았으니, 이것을 권공에게 전해 줌이 좋을 듯하다. 그것을 제공(諸公)들이 주고받았음에 비하여 어떠한가. 삼가 차운하여 기록한다.”⁶⁶⁾

결국 조선초 좌주문생의 학연과 1품 이상의 고관을 역임한 인물들이 서대를 서로 전하던 ‘전서대’의 연결고리는 ‘한천→이첨→?→황희→허조→하연→신석조→신숙주→권람→?’까지가 확인되고 있다. 태조부터 세조까지 해당하는 약 100년간 과거급제 및 지공거 역임이라는 검증된 최고 학자들의 영예스러운 전통으로 볼 수 있는 ‘전서대’를 통해 그 정점에 한천이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 한천의 문생으로 민안인과 이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좌주인 한천과는 달리 조선 개국 후에도 관직을 역임하여 신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로 공통점이 많으며, 이는 일정 정도 한천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성품이 강직했다는 점이다. 권신들을 탄핵하다 관직에서 물러났거나 유배 당한 적이 있었다. 둘째는 문장력이 뛰어났다는 점이다. 외교문서를 오랫동안 담당했거나 지제고를 역임했다. 또한 이 때문인지 조선개국 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었다. 셋째는 성균관의 고위 관직을 맡을 정도로 학자적 관료였다는 점이다. 성균관좌주 또는 성균관대사성을 맡으면서 학문 탐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유학자로서의 몸가짐을 갖췄다. 이상 문생들의 특징을 살피면서 좌주 한천의 영향력이 이들을 학자적 관료로 양성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3. 한천의 사상

한천의 관력은 사료상 1365년(공민왕 14) 전리판서가 처음 보인다.

66) 신숙주, 『보한재집』 권9, 칠언사운, 「차운제하진산전서대시권병소서, “正統戊午春 國家始開進士試 叔舟幸忝狀頭 時鷲山辛公以集賢校理參試 己卯冬 公留守開城而卒 公嗣壽耶既終喪 來訪兼致遺命 傳詩卷犀帶 … 左議政吉昌權公之冠庚午秋榜也 僕叨參試 今茲十年 而伴食廟堂 同掌數試 其以是傳之可乎 其視諸公之授受爲何如耶 謹賡以識.”

그 후 고려가 멸망할 때는 예문관대제학을 지내고 있었다. 그 사이에 밀직제학, 경상도도순문사, 판개성부사 등의 관력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1365년에는 지공거를 역임하기도 했다. 왕대로 보자면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공민왕대부터 우왕, 창왕을 거쳐 공양왕까지이다. 특히 그가 과거를 거쳐 입사했다고 추정할 때 그의 나이는 20대였을 텐데, 1350년 전후로 본다면 바로 공민왕 즉위와 때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민왕대 이후 고려말 유학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천은 종제인 한수의 친구 목은과도 간접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은의 출생년이 1328년(충숙왕 15)이므로 한천과도 거의 동년배에 해당한다. 이리하여 공민왕대 이후 목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리학의 진흥을 살펴보고, 이를 한천 사상의 토대로 이해하려 한다.

공민왕(재위; 1352~1374)은 기철(奇轍) 등의 친원과 제거, 쌍성총관부 회복, 격하된 관제 회복 등 반원자주정책을 펼친 임금이었다. 당시의 학문적 동향은 성균관이 중건되고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때였다. 충렬왕 때 안향(安珦), 백이정(白頤正)에 의해 고려에 전래된 성리학은 권부(權溥)⁶⁷⁾와 우탁(禹倬)⁶⁸⁾을 거치며 학문적 탐구가 심화되었고, 이제현 및 이색 때에 이르면 학문적 토대가 확고히 세워졌다. 특히 이색 때에는 성리학의 진흥 및 탐구가 제 궤도에 올랐음을 알게 되는데, 공민왕 16년(1367) 성균관의 중건과 관련된 다음의 사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민왕) 16년에 성균관을 중수하고 이색을 판개성부사겸성균대사성으로 삼

67) 권부: 일찍이 주자의 『사서집주(四書集註)』를 간행하자고 건의하여 실행하였기에, 우리나라에서의 성리학은 권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려사』 권107, 열전20, 권단, “(權)溥 嘗以朱子四書集註建白刊行 東方性理之學 自溥倡”).

68) 우탁: 경사(經史)에 통달하였고 더욱 역학(易學)에 대한 지식이 심오하였다. 그의 접술은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정이(程頤)가 주석을 달아 해설한 『주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해 오자 능히 해득하는 자가 없었는데, 우탁이 몇 달을 문 단고 전심 연구하여 드디어 문리를 해득하였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교수하였다. 이리하여 성리학이 비로소 시행되었다(『고려사』 권109, 열전22, 우탁, “(禹)倬 通經史 尤深於易學 卜筮無不中 程傳初來東方 無能知者 倬乃閉門月餘 參究 乃解教授生徒 理學始行”).

았다. 생원을 더 두며 경술의 선비인 김구용(金九容), 정몽주, 박상충(朴尙衷), 박의중(朴宜中), 이숭인(李崇仁) 등을 선발해 다른 관직을 가진 채 교관을 겸임시켰다. 이전에는 관생이 수십 명에 불과하더니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서를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더불어 토론하여 피곤함을 잊게 되니 이에 학자가 많이 모여 서로 더불어 관감하고 비로소 정주 성리학이 흥기하였다.”⁶⁹⁾

이 사실은 목은이 40세 때의 일이다. 또한 성균관을 중건하게 된 이유는 1361년(공민왕 10)에 있었던 홍건적의 침입으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위의 사료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대의 뛰어난 유학자들을 교관으로 삼아 성균관을 운영하였다. 둘째, 성균관 관생들의 급증과 그들의 학업 정진 자세이다. 셋째, 비로소 정주 성리학이 흥기하게 되었다. 이 모든 사실은 목은이 대사성으로 성균관을 이끌면서부터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성리학은 비로소 목은에 이르러 흥기되었으며, 이제 충렬왕대 수용된 성리학이 그 학문적 실체를 띠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때의 상황에 대해 양촌 권근도 목은이 당대의 유종으로 쟁쟁한 유학자를 이끌며 유학 진흥에 힘쓴 면면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성균관 중건) 다음해 무신년 봄에 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 제공(교관)들이 경서를 나누어 수업하고, 날마다 강의가 끝나면 서로 의심하는 것을 토론하여 각기 그 아는 바를 다하였다. 이에 목은이 의연히 중간에 서서 변석하고 절충하기를 반드시 정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힘썼는데, 밤새도록 피곤함을 잊어 버렸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크게 일어나 학자들은 기송사장(記誦詞章)의 구습을 버리고 신심성명(身心性命)의 이치를 궁구하게 되었으며, 유도(儒道)를 높일 줄을 알고 이단에 현혹되지 않으며, 그 의리를 바로하고 공리를 도모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유풍(儒風)과 학술이 환하게 일신되었으니 모두가 선생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신 힘이였다.”⁷⁰⁾

69) 『고려사』 권115, 열전28, 이색, “(恭愍王)十六年 重營成均館 以穡判開城府事兼成均大司成 增置生員 擇經術之士金九容鄭夢周朴尙衷朴宜中李崇仁 皆以他官兼教官 先是館生不過數十 穡更定學式 每日坐明倫堂 分經授業 講畢相與論難忘倦 於是學者塗集 相與觀感 程朱性理之學始興.”

70) 권근, 『목은집』 행장, 「朝鮮牧隱先生李文靖公行狀」, “明年戊申春 四方學者塗集

물론 위 글은 목은의 제자였던 권근이 그를 찬탄하며 서술한 글이고, 이 글이 수록된 『목은집』 역시 목은 후손에 의해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다분히 업적 미화가 없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 바로 위에서 인용한 『고려사』 열전에서도 ‘목은에 의한 성리학 발흥’이 강조되어 있고, 나아가서 『태조실록』에서도 목은의 이 점을 인정하며 유종으로서 목은의 위상을 밝히고 있다.⁷¹⁾ 그러면 이와 같은 성균관에서의 학문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두 사료를 인용할 수 있다.

(1) “지난날 정몽주, 최표(崔彪), 박의중 등이 성균관 교관이 되었는데, 내(이승인)도 또한 감히 그 반열에 섞인 지 7,8년이 흘렀다. 이 때 학도들은 날로 몰려들었고 강의실은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교관들이 새벽에 일어나 성균관으로 들어와서 당에 오르면, 학도들은 정(庭)의 동서로 나뉘어 줄지어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몸소 예절을 표했다. 제각기 공부하는 경전을 갖고 좌우 전후로 잇달아 교관에게로 나아갔다. 교관과 학도 사이의 수업이 끝나고, 또한 서로 논란이 일어나면 변석하고 절충한 후에야 끝을 맺었다. 책 읽는 소리는 날로 다하여 끊이지 않았다. 나는 자주 사람들의 얼굴에 기쁜 모습이 넘치는 것을 보고, 이에 유도(儒道)가 일어서는구나 하고 여겼다.”⁷²⁾

(2) “국가에서 신축년(辛丑年) 병화(홍건적 침입)를 입은 이후 학교가 황폐했다. 이에 공민왕이 다시 일으킬 결심을 하고 새로이 성균관을 창건하여, 학관이 적었기에 석유(碩儒)인 김구용, 박상충, 박의중, 이승인 및 포은을 뽑아서 학관을 겸하게 하고 목은 이색으로 대사성을 겸하게 했다. 이 때 경서가 우리나라에

諸公分經授業 每日講畢 相與論難疑義 各臻其極 公怡然中處 辨析折衷 必務合於程朱之旨 竟夕忘倦 於是 東方性理之學大興 學者祛其記誦詞章之習 而窮身心性命之理 知宗斯道而不惑於異端 欲正其義而不謀於功利 儒風學術 煥然一新 皆先生教誨之力也.”

71) 『태조실록』 태조 5년 5월 7일(계해) (李穡 卒記), “丁未 以本國判開城兼成均大司成 舉一時通經術者鄭夢周李崇仁等六七人 皆兼學官 分經授業 常與論難 各盡其極 穡辨析折衷 竟夕忘倦 於是 記誦之習 功利之說稍息 而性理之學復興.”

72) 이승인, 『도은집』 권4, 「贈李生序」, “昔者烏川鄭丈達可 仁山崔丈彥父 密陽朴丈子虛 爲教官成均 予亦猥廁其列七八年 是時學徒日臻 齋廡殆不能容 教官晨興入館門 既升堂 學徒序立庭東西 又手罄躬行禮訖 各執所治經 左右前後如牆進 而教官中學徒受業竟 又相發難 有所折衷也而後罷 讀書聲窮日不輟 予數人喜形於色 相謂曰 斯文其興矣乎.”

이르러 온 것이 오직 『주자집주(朱子集註)』였다. 그런데 포은이 자신의 논설을 주장함에 못사람의 생각을 뛰어 넘는지라 듣는 이가 자못 의문을 품었는데, 뒤에 운봉(雲峰) 호씨(胡氏)의 『사서통(四書通)』⁷³⁾을 구해보니 포은의 강론한 바와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여러 유학자들이 더욱 탄복해 했다.”⁷⁴⁾

위의 (1) 사료 『도은집』을 통해 우리는 당시 성균관에서의 강의가 교관, 학도 사이의 근면성과 교례의식 및 활발한 토론 등으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경전 연구라는 학업에 얼마나 정진하고 있었는지 쉬이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성균관에서의 강의 수준이 외형적으로는 꽤나 권위 있고, 성(誠)과 경(敬)이 충만한 훌륭한 수업이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2) 사료 『포은집』을 통해서도 성균관에서의 수업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 글은 포은의 성리학 수준을 찬미한 글이지만, 간접적으로 성균관에서의 내실 있는 강의 수준을 시사하는 바가 될 것이다. 즉 주자의 『사서집주』가 이미 간행되고 있는 마당에 다시 호병문(胡炳文)의 『사서통』과 같은 성리학서가 수입되어, 이를 통한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 중 정몽주의 논설이 토론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이는 차후에 수입된 『사서통』의 주석과 일치했다는 사실로 보아 포은은 이미 정통 성리학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당시의 유학자들도 토론을 통해 포은의 성리설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포은을 동방이학지조(東方理學之祖)⁷⁵⁾라 평가하고 있는 마당

73) 『사서통』: 퇴계 이황이 이 책에 대해 해설한 글이 있어서 다음에 소개한다. “운봉 호병문의 사서통은 주자가 친술한 사서장구를 잠심 연구하여 지은 책으로 송나라 말기 쌍봉 요로가 주자를 배웠으나 그의 사서집주가 주자의 학설과 어긋남이 많아 이를 바로잡는 의도에서 이것을 지었다(이황, 『이학통록』 권10, 『원제자편』).”

74) 함부림, 『포은 행장』, 『포은집』 행장, “國家自辛丑被兵以來 學校荒廢 至是恭愍王銳意復興 新創成均館 以學官小 選碩儒若永嘉金九容 潘陽朴尙衷 密陽朴宜中 京山李崇仁及公兼學官 以牧隱李文靖公兼大司成 時經書至東方者唯朱子集註 而公講說發越 超出人意 聞者頗疑 及得雲峯胡氏四書通 與公所論 靡不脗合 諸儒尤加歎服.”

75) 이색은 정몽주를 지극히 칭찬하며 말하기를, 그의 논리는 황실수설하여도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여, 미루어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로 삼았다(『고려

에 당시의 유학자들 역시 수준 높은 성리사상을 갖췄으리라 보인다.

이상 성균관에서의 수업 수준은, 외형적으로는 권위 있고 성(誠)과 경(敬)이 충만한 수업, 내면적으로는 정통 성리학의 본질을 토론할 정도의 밀도 있는 논설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특히 여기서 언급되고 인물 들은 이색, 이송인, 정몽주, 권근 등으로 당시 한천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인물들로 파악된다. 지공거를 역임하였고, 예문관대제학으로 고려 관직을 마치는 한천은 이상 고려말 유학자들의 성리학 진흥과 관련 그 수준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IV. 최익현의 「서재한공유허비(恕齋韓公遺墟碑)」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한천이 살았던 유허에는 청주한씨 제주문중 회가 건립한 「서재공재각」과 전사당이 있으며, 경내가 잘 정비되고 성역화 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을 끄는 것이 「서재한공유허비」이다. 비문을 지은 이가 면암 최익현으로 되어 있어 더욱 관심을 끌게 한다. 면암은 1873년(고종 10) 11월 홍선대원군의 실정을 탄핵하다가 제주에 위리안치 명을 받고 유배되었다. 1년 반 동안의 유배 생활 끝에 1875년(고종 12) 2월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곧바로 육지로 떠나지 아니하고 이해 3월 한라산을 유람한 뒤, 4월에야 제주를 떠났다. 면암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⁷⁶⁾는 이때의 여정과 감상을 기록한 여행기인데, 그 글의 마지막 대목에 1875년 5월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제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주를 떠난 뒤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면암의 제주 유배 시점은 1873년 11월에서 1875년 4월까지이다.

한편 면암은 1876년(고종 13) 1월 일본과의 통상조약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다시 나주목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그 후 ‘방축향리(放逐鄉里)’의 명을 받고 3년간의 흑산도 유배생활이 끝난 때는 1879년(고

사) 권117, 열전30, 정몽주, “李穡亟稱之曰 夢周論理 橫說豎說 無非當理 推爲東方理學之祖”.

76) 최익현, 『면암집』 권20, 가.

종 16) 2월 9일이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인 포천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1879년이면 면암이 고향인 포천에 살고 있을 때이다.

면암이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재한공유허비」는 실제로는 유배 시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바로 유허비명에서 찾아진다. 면암은 유허비명 마지막 대목에서 글을 쓴 시기를 ‘승정후오기묘중추(崇禎后五己卯仲秋)’라고 밝히고 있다. 승정은 중국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 때의 연호(1628~1644)이다. 명나라가 망한 뒤에도 선비들은 청나라 연호 사용을 꺼려 이 연호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승정후오기묘’는 승정 연호의 마지막 연도, 즉 1644년 이후 다섯 번째로 오는 기묘년을 뜻한다. 이를 계산하면 1879년에 해당한다. 또 ‘중추(仲秋)’는 음력 8월이다. 결국 면암 자신이 유허비명을 작성한 시기는 1879년 음력 8월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879년 8월이면 면암이 흑산도 유배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옮겨가 있을 때였다. 면암의 제주 유배 시점은 1873년에서 1875년까지이므로, 유허비명에 명시된 시기가 맞다면 유허비명은 제주 유배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아마도 제주도 유배시절부터 한천에 관하여 들어두었다가, 제주 유배 후 다시 3년간의 흑산도 유배까지 끝나 고향에 돌아간 뒤 한천 후손을 만난 것을 계기로 써준 것이 아닌가 한다.

면암의 유허비명에서 중요한 논제가 되는 바는 네 가지이다. 첫째 한천의 제주유배와 입도시기. 둘째 한천의 후사. 셋째 한천의 유허지. 넷째 한천의 지역사회 교화가 그것이다. 아래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비명에 대한 필자의 논증을 가한다.

(1) 『고려사』에 기재된 바로는 … 공양왕 4년(1392) 임신 7월에 공양왕을 원주에 방치하고, 단양군 우성범과 진원군 강희계를 베고, 대제학 한천을 제주에 유배했다고 하였다. 이것이 실록으로서 후세에 가히 고증이 될 만하다.”⁷⁷⁾

위의 비명은 사실 면암이 명확한 고증을 하지 못한 대목이다. 분명 『고려사』에는 1392년에 한천을 유배 보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제주에

77) 최익현, 「서재한공유허비」, “麗史所載 … 恭讓王三年辛未 判開城府事 四年壬申 七月 王遜于原州 斬丹陽君 禹成範 晉原君 姜淮季 大提學 韓戴于濟州者 此實錄也 足徵百世矣.”

유배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 때문에 한천의 제주 입도 시기가 문제가 된다. 그의 묘소가 존재하고 후손들이 관적, 족보에 기록되어 전하는 실정 때문에 한천의 제주 입도는 확실한데, 그 시기는 1392년이 아니라 오히려 1400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유배 1년 뒤인 1393년 한천을 공신으로 녹선하는 기사가 확인되고, 1400년에 처사한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따라서 한천의 제주 입도는 1400년 이후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한다.

(2) “공의 배위되는 광산 김씨는 광정대부정당문학예문관대제학지춘추관사상 호군을 지낸 장영공 휘 진의 따님이다. 두 아들을 낳으니 장남이 말(沫)이고 차남은 제(濟)이다. 이는 광산 김씨의 족보에 이미 공과 두 아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제주 관적(官籍)에도 가히 공의 후손이라는 것을 고증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육지에서 간행한 한씨 족보에는 마치 서재공의 후손이 없는 것처럼 되어있는가.”⁷⁸⁾

위의 비명은 한천의 후사 문제와 관련 중요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한천은 후사가 없고, 그 때문에 생질이 그의 재산을 독차지한다고 전한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육지의 청주한씨 문중회에 서는 조선시대 이래 한천의 후사는 끊긴 것으로 족보를 편찬해 오고 있었다. 이런 오류에 대해 면암은 명확한 근거를 대며 올바른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한천 처가인 광산 김씨 족보에 한천과 두 아들이 기록되어 있고, 제주 관적에도 후손들이 이어온다는 점으로 보아, 이를 육지의 청주한씨 족보에 당연히 올라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필자 역시 이런 면암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한다.

(3) “지금으로부터 오백여년 전에 공이 이곳에 사셨는데, 침실과 집 울타리, 부엌과 마구간, 서재와 점당(點堂) 등이 있었던 위치를 옛 노인들이 하나하나 똑똑하게 지적하고 있다. 옛날 소백감당(召伯甘棠)이나 정공향(鄭公鄉)처럼 대대로 내려오면서 잊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공의 유덕이 얼마나 사람들의

78) 최익현, 「서재한공유허비」, “公配光山金氏 匡靖大夫政堂文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 章榮公 諱楨女 生二子 長曰沫 次曰濟 金氏舊譜 既載公與二子 濟州官籍 又可考公子姓 而獨於韓氏內地全譜 以無後懸錄 何故歟.”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 공덕이 멀리 비치고 있음을 가히 알 수 있다.”⁷⁹⁾

위의 비명은 한천의 제주 유희지에 대한 고증을 하고 있다. 500년이 지난 시점에도 가시리의 어른들이 그 위치를 정확히 지적하는 데 대해 감탄하며 한천이 마을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그 유희에 청주한씨 제주문중회가 세운 충의사가 세워져 있으며, 면암의 유희비는 충절각이라는 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4) 또 공이 이곳에 온 후에 후진들의 교육을 자기소임으로 삼았으며, 제자들의 근면과 태만 및 잘하고 못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하였다. 이른바 「서당터」, 「점당터」 등이 바로 그 자리였었다. … 공도 또한 제주에 와서 규약을 세우고 선비들을 가르쳐 이 섬에 학문이 일어나게 하였다.⁸⁰⁾

위의 비명은 한천이 제주 입도 이후 가시리에서의 교화 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서당을 세워 교육이 이루어지고, 규약을 세우고 후진 양성에 힘써 제주에 학문이 일어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한천은 후손들에게 “세상을 피해 살고 벼슬길에 나서지 말라(甘遯不仕).”는 계명을 내린 것으로 전한다. 그의 4대손 한계로의 묘비명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그의 명성을 듣고 배우러 찾아오는 제주민들을 내치지는 못했을 듯하다. 이리하여 그의 학문과 교화가 이루어져 제주는 바야흐로 신유학의 학풍을 접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제주에 내려온 김만희(金萬希), 이미(李美) 등 고려유신들의 입도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79) 최익현, 「서재한공유희비」, “今距 公五百餘年 其寢廓 廚廩 書齋 點堂諸位置 牧老耕叟 尙歷歷指點 記傳不忘 如召芟鄭鄉焉 苟非公 德入人深 功及人遠者 能如是乎.”

80) 최익현, 「서재한공유희비」, “又聞公居於是也 以教育後進爲己任 後進之勤慢能否 必點考焉 所謂書齋點堂 是其址也 … 公又南渡 立約教士 而島漸興學.”

V. 맺음말

본고는 여말선초 고려유신(高麗遺臣)으로 청주한씨 제주 입도조로 알려진 한천을 재조명하였다. 『고려사』 열전에 소개되어 있지도 않고, 전하는 개인문집도 없으며, 관련 자료도 종친회에서 펴낸 것과 최익현의 금석문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 그의 생애 전반을 조명한 논고 한 편 없는 마당이었다. 이에 본고는 한천과 직간접적인 교유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의 여러 개인 문집을 통하여 그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였다. 더 나아가 한천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몰년’, ‘제주 입도와 시기’, ‘후사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천의 선대 가계를 통해 가풍 및 성장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선대들이 역임했던 관직들은 한림학사, 지제고 또는 간의대부, 우대언 등이었다. 이를 통해 학문과 문장에 능할 뿐 아니라, 언관으로 청요직을 거쳤던 그의 가풍을 이해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조부 이후 한천 가문과 당대 이곡, 이색 부자와의 교류도 깊었다. 이 때문에 고려왕조와 운명을 함께하는, 깊은 유학적 가풍 속에 한천이 존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한천의 친족으로는 6명의 숙부, 11명의 종제, 2명의 매부, 4명의 생질이 있었다. 이들 모두는 여말선초 주요 관직들을 역임하며 한천의 관계행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생질(홍륜)과 종제(한안)가 관련된 공민왕 시대 사건으로 한천은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종제(한수, 한리)와 매부(정추) 등을 통해 이색, 정몽주, 이준오 등의 고려말 충신들과 정치적 행로를 같이하며 입지를 다지기도 했다.

한천은 좌주로 100명에 가까운 문생을 거느려 고려말 학자적 관료로서 그의 위상도 높았다. 그의 문생인 이침, 민안인 등은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력, 유학자로서의 독실한 행동 등으로 당대에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이런 그들이 학자적 관료로 우뚝 서기까지는 좌주 한천의 영향력이 컸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서대’의 전통을 통해 조선초 모든 관료의 존경을 받는 학자적 재상의 첫머리로 한천이 소개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한천의 사상은 묵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말 정통 성리학의 학풍이 자연스레 침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친족

(종계)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기에 한천 역시 그들과 간접 교류하며 ‘기송사장’보다는 ‘신심성명의 이치 탐구’에 매진하는 성리학이 곧 그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편 한천의 생몰년은 1300년(충숙왕 17)~1403년(태종 3)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의 제주 입도 및 시기는 널리 알려진 1392년 고려 멸망과 함께하여 입도한 것이 아니라, 1400년(정종 2)~1403년(태종 3)에 입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료상 합리적 해석이라 밝혔다. 후사 문제에 대해서도 면암 최익현의 입장을 옳게 받아들였다. 당시 광산김씨 족보 및 제주 관적에 한천의 후사 및 후손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한천의 제주입도와 그의 계보는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면암의 주장이 곧 필자의 입장이다.

이상 본고는 한정된 사료 속에서도 한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조명 작업을 진행하였다. 최소한 문헌 및 금석학적 수준에서 한천을 조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소개하였다. 또 그 자료들 속에서 향후 규명해야 할 논점까지 제시하며 필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리하여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한천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본고를 토대로 향후 한천 연구에 심층적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사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시경』,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의읍지』, 『조선왕조실록』(태조, 정종, 태종), 『증보문헌비고』, 『서재한공유허비』(최익현), 『창신군장관 원종공신녹권』, 『한계로 묘비명』.

2. 문집류

권근, 『양촌집』. 서거정, 『필원잡기』. 신숙주, 『보한재집』. 안정복, 『동사강목』. 이곡, 『가정집』. 이색, 『목은집』. 이승인, 『도은집』. 이원조, 『탐라지초본』. 이원진, 『탐라지』. 이침, 『쌍대당협장집』. 이황, 『이학통록』. 정몽주, 『포은집』. 최익현, 『면암집』. 하연, 『경재집』. 한수, 『유항집』.

3. 연구논저

고창석, 『원·명(元·明) 교체기의 제주도』, 『탐라문화』 4, 198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9~23), 1993~1995.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2013.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국서간행회, 1956.

김석익, 『탐라기년』, 영주서관, 1918.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김찬흠,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담수계, 『증보탐라지』, 1953.

신천식,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학맥』, 경인문화사, 2004.

양진진, 「제주 유배인의 개화교학활동연구」, 『민족문화연구』 23, 1990.

양진진, 「탐라국의 유학 수용 연구」, 『한국교육사학』 18집, 1996.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지』 1, 제주도, 1996.

제주문화원, 『역주증보탐라지』, 2005.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제주유맥육백년사』, 1997.

한천택, 『청주한씨 연원과 역사』, 청주한씨 제주문중회, 1984.

한천택, 『서재한공천실록』, 청주한씨 제주문중회, 1994.

홍순만, 「제주의 입도조(入島祖)와 분묘(墳墓)」, 나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4.

홍순만, 『제주에 선비의 얼을 심은 고려유신 한천』, 남제주문화원, 2008.

홍영의, 『고려말 정치사 연구』, 혜안, 2005.

Abstract

Review on 'Han cheon, Jeju Ipdojo of Cheongju Han Clan' in the End of the Koryeo Dynasty and Early Chosun Dynasty

Hong, Ki-Pyo*

This research sheds new light on 'Han cheon', the vassal of Koryeo in the end of the Koryeo dynasty and early Chosun dynasty, known as 'Jeju Ipdojo' of Cheongju Han Clan. There is no thesis examining his life left so far. This article, therefore, examines his lifetime and thought by looking into individual anthologies of his company. Moreover, it advances opinions about his 'dates of birth and death', 'entry into Jeju' and 'issue of his heir', and so on. Not only does it go on overall analysis of Han cheon with literature materials and epigraphy as far as possible, but presents issues to be examined in the future with it. This report expects the discussion on Han cheon in depth on the basis of this review.

Key Words : End of the koryo dynasty and early chosun dynasty(麗末鮮初), Cheongju Han Clan(淸州韓氏), Han cheon(韓蒧), Cheju Ipdojo(濟州入島祖).

www.kci.go.kr

* A Member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JeJu-do.

교신 : **홍기표**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문화재위원
E-mail: hkp6236@naver.com

논문투고일: 2017. 04. 29

심사완료일: 2017. 06. 04

게재확정일: 2017. 06. 05